



제19대 노조 출범... 새 경영진 선출에 역량집중

15일 노조출범식 · 경영진 선출 등 굵직한 현안

뉴 미디어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제2의 창사'에 비전을 제시할 새로운 경영진 선출이라는 최대현안을 안고 제19대 노조 집행부가 출범했다.

15일 본사 1층 로비에서 열린 노조 출범식에서 유익주 신임 노조위원장은 "올해 노조는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에 따른 새로운 경영진 선출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출범했다"며 "1월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조합원들의 총의대로 사장추천위원회에 사원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새 경영진은 지난해 말 뉴스통신진흥회가 구성된 뒤 처음 선출된다는 점에서 사내외의 이목이 모이는 상황인 만큼 19대 노조의 중추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유 위원장은 "새 경영진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충족시키고 뉴스통신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인물이 선임되어야 한다"며 "19대 노조는 다른 여러 과제를 제쳐놓고 이 문제에 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19대 노조는 또 급변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지난해 4월부터 경영진이 펴 온 멀티미디어 콘텐츠 생산 등 일련의 혁신책에 대해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나름의 평가를 실시해 고과를 따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전국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연합뉴스는 뉴스와 콘텐츠의 도소매 개념이 희박해졌지만 여전히 언론중의 언론"이라며 "그러나 연합뉴스 조합원은 노동강도에 비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 임금협상에서 사측이 미온적으로 나오면 임금교섭권이 있는 산별위원장이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섭 사장은 축사에서 "콘텐츠 도매상인 연합뉴스는 변화에 대처해 스스로 부단히 변화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19대 집행부는 한두 달 사이에 예상되는 큼지막한 일정과 관련, 조직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파수꾼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조가 출범함에 따라 집행부는 17일 첫 회의를 열어 사장 선임 및 신 인사평가제도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새로운 경영진



15일 오후6시 1층 로비에서 열린 제19대 집행부출범 및 창립 제18주년 기념식에서 유익주 신임 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을 선출하는 과정에 필요한 선결 요건과 현재 잇따라 경영진을 교체하고 있는 언론계 제반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집행부는 지난 1월 전임 집행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조합원들의 뜻이 모인 가운데 현

집행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신 인사평가제도 시행 및 조합원 대출금 상환, 대체휴가 이행제 점검 등의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노조는 내달 중순께 제1차 대의원 대회를 열어 올해 주요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승인받을 예정이다.

노조 위원장에 유익주 조합원 선출 - 94% 찬성

부위원장에 경수현 · 흥인철 조합원

지난 6일 실시된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19대 집행부 선거 개표 결과 위원장에 유익주 정치부 기자, 부위원장에 경수현 경제부, 흥인철 전북지사 기자가 투표 조합원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 각각 선출됐다.

투표 결과, 노조 위원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유익주 조합원이 투표 조합원 93.73%의 찬성률을, 경수현 · 흥인철 부위원장은 각각 93.33%와 94.9%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유 신임 위원장은 1993년 1월 연합뉴스 공채 14기로 입사, 사회부 · 경제부 · 정치부 등을 거쳤다.

노조 집행부 투표에는 재직 조합원(특파원, 해외연수자 제외) 393명 가운데 64.89%인 255명이 참여했다.

새 위원장은 사무국장에 박창욱(정보과학부) 조합원을 비롯해 총무부장에 허이회(전산부), 교육부장 강훈상(사회부), 쟁의부장 김범수(산업부), 조직부장 김준역(엔터테인먼트부) 조합원 등 19대 집행부를 구성했다.

19대 노조는 지난 15일 연합뉴스 1층 로비에서 조합원 150여명과 사내외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창립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유 신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조합원 개개인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불합리한 점과 조금만 신경쓰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해 회사를 '살맛나는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노보만평



● 제19대 집행부장 및 부원 명단 ●

부서	부장	부원
총무부	허이회	고영식 이창현 조미나
교육부	강훈상	장하늬 백나리 이준삼
쟁의부	김범수	정성호 정윤섭 국기현
조직부	김준역	한상용 신기원 김병규
조사부	김세진	김경희 신호경
복지부	신선균	황선익 고동선 김도형
선전부	진성철	심재훈 이준서 강건택
여성부	김혁선	현윤경 이윤 강병철

새 집행부에 바란다

“건강을 챙길수 있도록 여건을...”



김길원 정보과학부

어김없이 올해도 새 노조 집행부가 출범했다. 굳이 노조위원장과 두 부위원장, 사무국장의 면면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번 집행부가 든든하다는 사실에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출입처 등에서 노조 얘기를 하다보면 “언론사 노조는 상대적으로 크게 힘이 없지 않느냐”는 말을 들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기자는 기자고, 또 언론사 노조는 노조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럼 내가 말한 그노조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지만 솔직히 나도 이제서야 이 글을 통해 생각해 본다.

요즘 들어 업무 강도가 정말 세지고 있는 게 연합뉴스의 현실이다. 회사는 모든 기자에게 멀티플레이어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취재 현장에서 사진과 동영상도 함께 챙겨야 하고 때로는 별도의 사업(?)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연장되는 취재원과 술자리까지 참석하다보면 귀가할 때는 온 몸이 파김치가 되기 일쑤다.

일전에 직업별 사망률 통계를 내 보니 언론인이 가장 단명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아마 그 다음으로 법조인과 경찰 등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직업의 공통점은 모두 다 스트레스가 많으면서 업무 강도가 높다는 점이다. 여기에 운동량도 언론인이 가장 적었다고 한다. 그러니 단명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였다.

난 개인적으로 이번 노조에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다른 것 보다도 조합원들의 복리후생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조합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의무휴가와 보상휴가 등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몸이 아픈 조합원은 없는지 노조가 인간적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몸이 아픈데도 병가를 가지 못한 채 병을 악화시키는 사원이 있다면 그때는 노조가 직접 나서 조합원의 휴식을 강권할 수 있을 정도로 조합원들과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졌으면 한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노조 역시 조합원들의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사장선임의 열정적 주체 돼야”



이울 경제부

좋은 리더를 만나면 일할 때 신바람이 난다. 굳이 다그치지 않아도 에너지가 넘쳐나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그렇게 한 일은 또 좋은 성과를 내는 선순환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

반면 나쁜 리더를 만나면 같은 시간 일하더라도 힘이 2배로 든다. 이런 저런 지시를 받으며 죽도록 일하지만 성과는 나지 않고, 설사 나더라도 기쁘지 않다.

물론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가 단칼에 갈라지는 않지만 일관성 있는 철학, 출신수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혜안, 적절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구성원들을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좋은 리더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된다.

15일 출범하는 새 노조의 가장 중대한 임무는 조직 전체를 위해 좋은 리더를 뽑는 데 열정적인 주체가 되는 일이다. 앞으로 3년은 우리 조직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한 시기다. 우리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구성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조직의 성패, 나아가 지속가능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노조에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조합원의 83.8%, 비조합원의 73.5%가 뉴스통신진흥회가 사장추천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노조의 첫 임무는 뉴스통신진흥회와 협의해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성사시키고 그 구성원들이 공정한 인사들로 짜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새 집행부가 ‘여성부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장으로 여성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갈수록 여성 구성원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여성 친화적인 회식 분위기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새 집행부가 애써줄 것을 당부한다.

연합뉴스에서 오랫동안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노조가 일당백으로 노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

“소수의 권익보호에도 힘써주길”



김일중 네트워크부

제19대 노동조합의 힘찬 출발을 바라보며 기대와 응원을 보냅니다. 새로운 노조 집행부가 출범하면 전임 집행부는 항상 작은 아쉬움을 두고 떠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저는 17대 노조 일을 시작하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내가 다른 동료 선후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짧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초심을 생각하며 새로운 18대 집행부의 출범을 바라보았던 재작년 겨울에 아쉬운 후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이맘때에 제19대 노조 집행부는 후회 없이 후련한 마음을 갖고 제20대 노조의 출범을 지켜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19대 집행부의 앞길에는 회사 소유구조 개편의 가시화라는 숙명적인 의무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 해에 걸친 전임 노조 집행부의 노력을 발판 삼아 회사 소유구조 합리화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19대 노조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회사 근로 환경의 변화는 노조의 어려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특성상 노조와 회사간의 정서적 동질성으로부터 많은 부분이 이해되어 왔었고 격한 대립을 막고 의사소통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주위에는 노동 조건이 서로 상이한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이런 환경을 합리적으로 소화하고 조화해 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이란 단순히 의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조의 분발을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소외된 곳에서 함께하며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을 때 노조는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노조의 역량도 강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소수의 권익과 근무 환경도 다수의 그것처럼 중요하고 오히려 소수의 권익보호 및 신장은 조합의 중요한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월 노보에 봄바람 같은 소식이 실려 오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제19대 노동조합의 힘찬 첫발에 합성을 보냅니다.

“좋은 업무 환경 만들어주길...”



윤종석 산업부

새로운 노조 집행부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처음 조합원으로서 새로운 집행부에 바라는 점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아직 회사에 그다지 큰 도움을 못드린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노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도 입사 5년차를 맞았습니다. 물론 23기 중 가장 만만한 조합원으로 보인 점도 있겠지만 이제서야 저에게도 발언 기회가 왔구나 생각이 꽤 내심 반가웠습니다.

저는 거창한 거 부탁드릴 생각은 없고 현실적인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조합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내식당 메뉴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습 때 많이 이용했고 지금 산업부에 와서 내근하면서 가끔 이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생선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육류보다 생선이 몸에 좋은 것은 맞지만 그래도 출연 빈도가 너무 높아서 식상합니다.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업계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비데 설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수습 때 보니까 한국노총 화장실에도 비데가 있던데요. 한층에 하나씩이라도 어떻게 안될까요.

마지막으로 특히 고생하시는 정치부와 사회부, 스포츠레저부 등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비교를 떠나서 일단 몸이 힘든 곳에 계신 조합원들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급도 많이 오를수록 좋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OT)을 보다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도 못하면서 뻘뻘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요구사항을 늘어놓은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기왕 요구사항을 말할 기회를 주셨으니 이렇게 먼저 생각나는 것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최전선에서

“문어, 발 빠집니다!”

노보의 '최전선에서'란 코너의 글을 써달라는 전임 노조 부위원장의 전화를 받았다. 지방부를 포함한 지사의 업무를 소개하는 일반적인 이 코너 스타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다 개인의 꾸념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사진기자의 삶을 폭로(?)하려 한다. 그것이 정말 최일선의 목소리일 것 같아서...

대전충남지사 사진 업무를 총괄하는 본인에게 요즘 새로운 직함이 하나 추가됐다. 거창하게 '영상 취재팀장'. 회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영상 취재력 강화를 위해 새로 투입된 2명의 대학생 영상 취재 인턴기자를 관리하는 역할로 취재 일정 만들기에서 현장 배치, 영상용 기사 송고 등을 총괄하고 있다. 가뜰이나 사진 취재와 기사 취재가 중복되던 터에 대안이 없어 선뜻 맡았지만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다.

기사로서 가치있는 뉴스와 사진으로 가치있는 뉴스, 영상으로 가치있는 뉴스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취재 형태도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영상인턴과 함께 현장에 투입됐다가도 인터뷰 등 영상 처리가 길어져 다른 취재 일정에도 어쩔 수 없이 대기하

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때론 회사에서 인턴 두 명을 태우고 나와 처음 취재 현장에 한 명을 내려준 뒤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인턴 한 명과 취재를 하고 다시 돌아와 태워 회사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요즘은 마치 기자가 아닌 택시기가 된 기분이다.

그러나 어찌리요. 이 모두가 회사의 발전을 위한 일인 것을. 영상 취재력 강화는 이 시대에 필수적인 콘텐츠가 되고 있다. 자칫 간과했다간 뒤쳐질 수도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얼마전 독립기념관 취재 현장에서 만난 국민일보 VJ의 모습은 그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그런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종종 뒷머리가 지근지근해짐은 왜 일까?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것 같다. '사진 못 찍는 사진기자로, 취재력 약한 취재기자'로, '어설픈 영상팀장'으로, '광고추진력 약한 사원'으로 남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대다수의 기자들, 특히 비슷한 상황의 지역 사진기자들이 이런 문제를 한번쯤 고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1인 3-4역의 역할을 해야하는 '멀티플레이어'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다.

큰 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가운데 7-8주 연속 일요일 근무를 하고 한 달 이상을 무휴 근무를 하기도 하지만 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다.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현장을 뛰어드는 것이 즐거운 경우가 많다. 다만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지 못한 채 하나의 도형을 채워주는 이름없는 블록으로만 남지 않을까 고민이다. 지역사진기자 투톱제(각 지사에 2명 이상의 사진기자를 두는 방안)가 논의되며 일부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사진을 할 것인가, 영상을 할 것인가, 기사를 쓸 것인가 또는 어설픈 멀티플레이어가 될 것인가를 최전선의 한 사람은 KT&G 법정소송 사진 취재를 나와있는 지금도 고민 중이다.



조용학 대전·충남지사

‘연합참일꾼상’에 ‘모바일서비스’ 관련 사원 4명

제3회 ‘연합참일꾼상’에 정보사업부 정승훈, 네트워크부 김일중, 사진부 진성철, 그래픽뉴스팀 박영석 사원 등 모바일 서비스 관련 부서 사원 4명이 공동수상자로 선정됐다.

모바일서비스란 이동통신사에 제공된 기사, 사진, 그래픽 등의 뉴스 콘텐츠를 이용자들 각 개별 무선포털에 접속해 유료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수상자들은 소속부서가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새로운 수익사업의 하나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모바일서비스 사업에 영업·기술·취재라는 각 부서의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며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비록 모바일서비스로 얻는 수입의 안정성과 규모가 현재까지는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수상자들이 보여준 협업과 도전정신은 급변하는 언론환경 아래에서 연합뉴스가 보여줘야 할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됐다.

한편 제1회 ‘연합참일꾼상’(2005년 5월)은 총무부 영선팀과 전산부 백중현 사원이 공동수상했으며 제2회 수상자(2005년 9월)로 민족뉴스부 모니터링팀이 선정된바 있다.

제18대 집행부 활동 보고서 발간

제18대 집행부가 지난 1년(2005년 3월1일~2006년 3월10일) 동안 걸어온 길을 담은 활동보고서가 발간됐다.

총 1백50페이지의 책자에는 조직, 노사협상 결과, 성명서, 공문, 공정보도위원회, 계시판, 연합노보, 이임사 및 관

련 사진 등을 소상히 담았다.

이 활동보고서는 총 3백부가 제작돼 각 부서별로 전달됐으며 언론노조를 비롯한 여러 언론단체와 정당 등 정치권에도 발송됐다.



이달의 참글상

이달의 참글상에 격려상 1편 선정

공정정보위원회(위원장 권정상)는 이달의 참글상(2월 송고분)에 대전·충남지사 윤석이 조합원의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정심화’ 꼬리표 떴다> 등 관련 기사 13건을 격려상으로 선정했다.

참글상을 수상한 윤 조합원의 <정심화...> 기사는 충남대가 ‘김밥할머니 회관’으로 더 유명한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사실을 단독보도하며 전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냈다.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은 1990년 고(故) 이복순(법명 정심화) 여사가 김밥장사로 모은 돈을 충남대에 기부해 지어지기 시작했으나 충남대는 외환위기(IMF) 등으로 고인의 발전기금이 건물을 짓는데 실질적 기여를 못했다며 명

칭을 바꾸려 했다.

이 기사는 특히 자본에 매몰된 경박한 대학 기부 문화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근, 결국 충남대 측의 방침 철회 결정을 이끌어 낸 점 등이 참글상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격려상으로 선정됐다.

윤 조합원은 “더욱 잘하라는 체적으로 알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목탁’ 역할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3월 송고분에 대한 이달의 참글상은 4월10일(월)까지 각 공보위원이나 노조(nojo@yna.co.kr)로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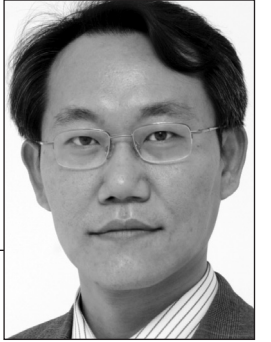


왼쪽부터 박창욱 사무국장, 정보사업부 정승훈·사진부 진성철·그래픽뉴스팀 박영석 사원, 유의주 위원장.



취임사

“조합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자”



유이주
제19대 노조위원장

언론개혁을 위해 분주하신 가운데 오늘 저희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님과 언론노조 각 지부 위원장님 등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연합뉴스 최초의 공모제 사장으로서 연합뉴스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영섭 사장님과 임원 여러분.

뉴스통신진흥회 출범이라는 사상 초유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조와 회사와의 관계 설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정재용 위원장을 비롯한 18대 노조 집행부 여러분.

노조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연합뉴스 노조원 동지들과 선·후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계시다시피 올해 연합뉴스 노조는 막중한 사명감을 부여받고 출범하게 됐습니다.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에 따른 새로운 경영진 선출 문제가 그것입니다. 회사의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이 중차대한 문제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경영진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 여부와 구성방식, 구성비율 등등 어느 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연합 노조는 조합원과 사원 모두의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새 경영진 선출 과정에 사원들의 충의를 전달하고 관찰시킴으로써 앞으로 3년마다 반복될 경영진 선임과정과 관련해 하나의 전형을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조합원들의 충의 대로 사장추천위원회에 사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립을 목표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경영진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충족시키고 뉴스통신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인물이 반드시 선임되어야 합니다.

뉴스통신에 대한 아무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권력과의 친분을 활용해 낙하산을 타고 경영진에 선임되는 사태가 빚어질 경우 노조는 물론, 전 사원이 온몸으로 막아내야 한다는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과제입니다.

제19대 노조는 다른 여러 과제를 쫓혀두고 이 문제에 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각오임을 밝힙니다.

언론매체별 전통적 경계를 넘어 매체의 경계를 넘어선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가 하면 뉴미디어의 출현 등으로 언론산업 전반이 격변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미래를 담보할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숙제입니다.

회사 경영진은 이런 흐름에 맞춰 지난해 4월 조직개편에서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경영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각 부서별 업무분장이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심지어 일부 부서는 들인 비용에 비해 결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비록 초기이기는 하나 의욕에 비해

성과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와 노조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존재라는 점에서 노조는 이런 부분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실시해 향후 사업방향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회사가 벌이고 있는 각종 신사업과 관련해 조합원 상당수가 갖고 있는 막연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하향식 평가의 병행을 통한 객관적 인사평가와 이를 인사 및 임금체계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 인사고과제'의 공식 시행도 이달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획기적인 이 시스템의 도입 및 운용과 관련, 노조는 시행과정과 평가결과 반영 등 전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14년째 기자 생활을 해 오면서 저는 '통신기자의 숙명'이라는 말을 사내외에서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조.석간신문은 물론, 방송, 인터넷 매체와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통신기자의 속성상 열악한 근무여건을 불평할 수 없다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회사가 최근 들어 경력기자를 대거 채용하는 등 인력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근무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나마 현재의 근무조건이 더욱 악화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저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 뽕족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18대 집행부가 회사로부터 어렵사리 얻어낸 대체휴가 이행제와 17대 집행부가 이뤄낸 장기근속휴가 시행기간 연장 등등의 시책은 반드시 철저히 시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방안으로 조합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역부족일 것입니다. 다만 현 집행부 역시 조합원 개개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불합리한 점들, 회사가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발굴해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저는 최근 몇년간 타 언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제반 여건들로 인해 회사의 경영상태는 물론, 사내 분위기도 크게 개선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뉴스통신진흥회법 시행 이후의 우호적 대외여건이 영속적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주어진 여건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언론계 내부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경영 여건을 지금보다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노조와 회사가 공동의 목표하에 일치단결하면 AP와 로이터 등 세계 유수의 통신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그야말로 '살맛나는 직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동해 내는데 올해 노조의 목표를 두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끊임없는 질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15일



이임사

정재용 제18대 노조위원장

돌이켜 보면 지난 1년간 나름대로 사명감과 의욕을 갖고 노조위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만 능력 부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채 19대 집행부에게 바통을 넘겨주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년 가량 표류해온 뉴스통신진흥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점 등 몇가지 현안을 해결한 것을 '작은 위안'으로 삼고 물러가고자 합니다.

지나해 노사간 최대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를 전사원 직접 투표라는 민주적 방식으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선·후배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흘리신 땀의 대가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밖에 본사와 지방간 간격을 좁히기 위해 12개 전 지사를 방문, 조합원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간담회를 가진 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지나해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법적지위와 창사 25년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위상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발전에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도 한 몫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회사를 끌고 나가는 양대 축으로서 노사가 서로 힘으로 모어나갈 때 연합뉴스는 글로벌 수준의 멀티미디어 통신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유이주 위원장과 19대 집행부를 뜨거운 박수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3월 15일